

연중 제32주일

기도서 474면 (B해)

제1독서 : I 열왕 17, 10-16

제2독서 : 히 브 9, 24-28

복 음 : 마르코 12, 38-44

숨 정 이

“나는 분명히 말한다.
저 가난한 과부가 어느
누구보다도 더 많은 돈
을 헌금함에 넣었다”

(마르코 13, 43).

강론

소리

봉헌과 예산 편성

김 병엽 신부/팔마 주임

연말이 다가오면 지나간 한해를 결산하면서 다음 해는 어떻게 할까 하고 여러 가지 구상을 짜보게 된다. 그 중의 하나가 사목과 직결된 예산편성이다. “건전한 육체에 건전한 정신이 깃든다”는 말처럼 건전한 예산이 뒷바침될 때 건전한 사목이 이루어지리라 믿는다. 건전한 예산이란 건축예산이나 비대예산을 말하고 싶지는 않다. 먼저 건축예산은 겉으로 보기에는 검소한 것 같이 보이지만 비합리성이 내포되어 있기 때문이다. 또 건축예산이란 말로써 자칫 구두쇠의 봉헌정신을 조장시킬 수도 있고 건축예산 뒤에 도사리고 있는 특별헌금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대추나무 연결리 듯하는 크고 작은 특별헌금을 전개하기 보다는 합리적인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사순절동안 열심히 금연을 했다가 사순절이 끝난 다음 주말배를 피웠더니 하늘이 노랗더라는 극기 체험담을 웃어넘길 일만은 아니다. 건축 예산을 실행한 다음 해에 팽창예산을 세운다면 모양도 좋지 않을 것이다.

다음은 비대예산편성의 경우이다. 비대예산편성은 어쩌면 건축예산편성보다 더 나쁠지도 모른다. 예산편성은 보나 나온 사목적 효과에 초점을 맞추어야지 본당신부나 사목위원의 후한마음(?)에 만족성을 두어서는 안된다. 이 만족성을 채우기 위해 자칫 과부의 봉헌정신을 빙자한 남용의 우를 범할까 염려되기 때문이다. 또 이 후한마음의 만족성으로 인해 예수님께서 경고한 바리사이파 율사(평신도 율사)나 사두가이파 율사(제관율사)나 에세네파 율사(꿈란 수도원 율사)로 변신될 위험도 배제할 수는 없을 것이다.

지금부터 15년 전의 일이었다. 사업을 하던 한 교우가 채무관계로 모든 것을 정리한 뒤 내게 찾아 왔었다. 사연인즉 모든 것을 정리하고나니 천 오백만 원이 남았다는 것이다. 그중 구백만 원은 자기가 쓰고 육백만 원은 신부님께 드릴테니 필요한 본당사업에 써달라는 것이었다. 한 마디로 감사해야 할 사건이었다. 이런 경우 상례적으로는 숨정이에 한 번 알려주고 사용하면 될 것이다.

본당 예산편성이 집행이나 관항목을 채우기에 앞서 보다 사목적 효과에 초점을 맞춘 합리적 예산이어야 함을 알면서도 그러지 못하는 자신을 탓해본다. 그러면서 내년에는 보다 잘해보리라 다짐해 본다.

멀고 가까운 이웃

‘5공비리, 전두환, 이순자, 언론대학살...’ 연일 신문지면을 가득 채우는 이런 활자 틈새에 숨어 조용히 우리를 바라보는 눈초리가 있다.

굶주림 때문에 뼈만 앙상히 남은 기아선상의 아프리카 어린이들의 사진이 바로 그것이다. 그 사진 밑에는 짙막한 해설이 있다. 수단 아베이 지역에서만 하루 평균 60 명이 굶어 죽어가고 있다. 그들에게는 더 이상 흘릴 눈물조차 없다고 ...

해외토피를 전한다. 스웨덴에서는 동물복지법이라는 것이 생겨나 소들도 푸른 초원을 누비며 자유롭게 살 권리가 있고 개도 목에 줄을 걸지않을 권리가 있다고.

둘 다 먼나라 이야기만은 아니다. 우리나라에서도 8천 명의 어린이들이 점심을 굶고 있다. 또 누구는 몇 천억 원을 해 먹고 병든 소와 수입고추를 땅에 파묻지 않았는가?

멀리 검은 대륙에서 電送돼 우리 앞에 놓인 아프리카 어린이들의 눈초리에 우리는 무엇이라고 응답할 것인가?

너희들이 그렇게 비참하게 죽어가는 동안 우리는 배불리 먹고 마시고 춤추었다고 말할 것인가. 우리의 곡식창고는 가득 찼지만 너희들에게 나누어 줄 것은 없다고 말할 것인가.

눈이 시리도록 맑게 개인 가을 하늘에 아프리카의 이름 모를 어린이들의 눈망울과 점심 굶어 쾩한 우리 어린이들의 눈망울이 한데 겹치는 것은 왜일까?

우리 주변에서 교회 십자가는 하루가 다르게 늘어가고 또 한 밤중에는 네온빛으로까지 반짝이는데 ...

숨정이 산책



「새 생명 - 이는 죽음이란 나무의 열매이다」

한국 교회는 11월 2日, 위령의 날이 끼어있는 이 달을 위령 성월로 제정하고 이어 먼저 세상을 떠난 선조들의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권장하고 있다. 또한 저물어가는 한 해와, 죽음이 나뉘는 들녘을 바라보며, 언젠가는 떠나야 할 자신의 모습을 깊은 눈길로 응시하고 묵상토록 한다. 이러한 교회의 의향대로 이 한 달, 죽음을 묵상하며 보낸다는 것은 매우 뜻있는 일이 아닐 수 없다. 죽음은 결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다. 마치 수평선과 같은 것이다. 사람들은 눈에 보기에 마지막으로 보이는 수평선을 세상의 끝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것은 끝이 아닌 시작인 것이다. 단지 나의 능력으로는 볼 수 없는 것 뿐이다. 죽음도 이처럼 우리가 인지(認知)할 수 있는 마지막이지만 내가 알 수 없는 그 어떤 삶의 첫 시작인 것이다. 그런데 그 시작은 현재의 삶과 동떨어진 시작이 아니고 현재의 이 삶에 뿌리를 박고 이루어지는 시작이다. 즉 현재의 이 삶은 죽은 후의 새 삶의 기초인 것이다.

또한 죽음은 결코 느닷없이 일어나는 한 순간의 사건이 아

니다. 이는 60년 혹은 그 이상 동안 꾸준히 준비되고 계획 되어진 사건이다. 결코 예고없이 갑자기 닥치는 한 순간의 사건이 아니다.

사람들은 흔히 말한다. “나이를 먹으니 예전같지 않아.” 하며 하루 하루 달라지는 자신의 모습을 본다. 즉, 하루 하루 죽어가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느낀다는 것이다. 즉 우리는 한 사람도 예외없이 매일 매일 죽어가고 있다. 10년을 살았다 함은 10년을 죽었다는 얘기다. 많이 살았다 함은 많이 죽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죽음은 먼 훗날 닥치는 한 사건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끊이지 않고 일어나는 구체적이고도 현실적인 사건이다. 따라서 우리는 먼 훗날의 죽음을 생각하기 보다는 지금 이 시간의 죽음에 신경을 써야 한다. 매 순간 순간의 죽음이 헛되지 아니 할 때, 이 죽음의 끝인 마지막 죽음이 의미있는 죽음이 되며 새 생명을 잉태한 죽음이 된다. 새 생명 - 이는 죽음이란 나무의 열매이다. 갑자기 맺는 열매가 어디 있는가!



성서와 함께

25. 성서시대의 역사(G) : 왕국의 분열

이 시기는 솔로몬의 죽음에서부터 북왕국의 멸망에 이르기까지 200여년 동안이다. 이 기간의 역사는 열왕 전 12장 - 열왕 후 17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12명의 남쪽 유다 왕들과 19명의 북쪽 이스라엘 왕들의 치적을 전해주고 있다. 역대 하 10-28장도 같은 시기의 역사를 다루고 있으나 오직 저자 자신에게 흥미있는 그것도 유다 왕들에 대해서만 기록하고 있다.

솔로몬이 죽은 후 왕국은 즉시 남북으로 분열되고 만다. 북쪽의 지파들은 남쪽의 유다와 벤야민 출신들만 우대했던 것이다. 마침내 북쪽 12지파들은 단결하여 여로보암을 솔로몬의 후계자인 르호보암에 대항하여 왕으로 추대한다 (열왕 전 12장).

이 기간 동안 남북을 통틀어 히브리인들의 공통된 적은 시리아와 아씨리아였다. 특별히 벤하담과 하젤 치하의 시리아는 북쪽 왕국 이스라엘에 끊임없는 위협을 가해왔고 급기야 BC 720년 아씨리아가 북쪽 왕국을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지게 했다.

북왕국의 왕들 가운데 적어도 네 이름이 거론될 필요가 있다. 오므리왕은 왕국에 질서와 안정을 가져다 주었다. 이세벨의 남편 아합왕은 우상숭배 때문에 엘리야 예언자와

수명적인 적대관계를 맺었지만 시리아의 벤하담을 굴복시켜 아씨리아를 거스려 동맹세력을 형성하였다. 예후는 아마도 야훼께 대한 충성으로 인하여 엘리사 예언자에게 왕으로 추대된 듯 싶는데 하지만 자기방식의 개혁을 관철시키기 위하여 지나치게 사람들을 살상하였다. (열왕 후 10, 18-31). 여로보암 2세는 시리아에게 빼앗긴 영토를 재탈환했고 왕국이 멸망하기 이십삼년 전 북왕국 이스라엘에 최대의 전성기를 가져다 주었다.

남쪽 유다왕국의 역사는 북쪽의 그것에 비해 매우 단조로웠다. 이 시대의 유다왕들 중 우찌야와 아하즈가 가장 유명했다. 열왕 후 15, 37에 기록된 비극적인 사건은 저 유명한 이사 7, 14의 배경을 이룬다. 이스라엘의 왕 베가가 시리아왕 르신과 동맹을 맺고 아씨리아와 싸우는 마당에 유다의 아하즈를 끌어들이려 했으나 듣지 않자 이스라엘은 시리아와 더불어 유다를 공략하였다. 그러자 아하즈는 아씨리아를 불러들여 동쪽 이스라엘을 멸망케 한다.

여기서 우리는 분열된 약소민족이 외세의 간섭에 의해서 어떻게 붕괴되는지 그 참담한 과정을 적나라하게 볼 수 있다. 한반도의 현실을 반성케하는 역사이기도 하다.

인테리어 커튼 · 씰키 카피트 · 무대막 · 임탁

쓰롯 데 커튼

성 창호 (대리안드레아)

전주시 중앙동 (관동로 객사옆 2층)

☎ 86-4884

혼수전문 · 커튼 · 약혼복

서울주단

김 완준 (안도니오)

박 윤화 (베로니카)

중앙성당 정문옆

☎ 3-0453, 77-5095

서범석 한의원

원장 서 범석 (꼰배)

전주시 덕진동 1가 1262-16

전북대 앞 덕진성당 옆

☎ 72-2665

75-3533

산데리아 · 스텐드 · 조명기구

전기재료 · 각종전기공사 · 누전공사

대광조명전기

대표 김 남주 (레미지오)

이리 중앙시장사거리 신화약국 옆

☎ (0653) 52-0569

교 구 소 식

“초대합니다” 제2회 그레고리오 음악제

- 일시 : 6일(오늘) 오후3시, 7시30분
- 장소 : 전북학생회관
- 주관 : 천주교 전주교구
- 주최 : 전주교구 성가대 연합회

†주어 : 그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소서. 오스트리아 인스브룩에 유학중이던 김호연(안토니오, 남원본당, 89년 1월 부제품 예정) 신학생이 등반사고로 10월 30일경 사망했습니다. 삼가 조의를 표하옵고 기도 부탁드립니다

1. 사제피정 : 7일~11일 장소-천호 피정의 집. 피정기간중 많은 기도 바랍니다.
2. 중화산동 성당 명칭이 효자2성당으로 변경되었습니다.
3. 사랑의 다리 월례미사 : 7일 오전10시30분 사회복지회관
4. 본당 애령회 회장단 피정의 건 : 7일(월) 장소-가톨릭센터 3층회의실 회비-일인당 5,000원 대상-본당 애령회장단 애령회 실무자
5. 전주교구 여성 연합회 1일피정 : 14일 오전9시30분 장소-가톨릭 센터 대상-각 본당 여성부장, 여성단체장 회비3,000원
6. 초등부 교리교사 성탄연수회 : 13일(일) 오전9시-오후6시 가톨릭센터
7. 중·고생 Gen 성가 경연대회 : 13일(일) 오후1시-6시 노송성당
8. 테클라 성소모임 : 오늘 오후2시, 장소-성바로로 서원2층
9. 군중후원회 월례미사 : 7일 오후6시30분 장소-가톨릭 센터 성당
10. 자연가족 계획 교육 : 8일 22일(매월 둘째,네째 화요일) 오전10-12시(임신을 원하거나 피임을 원하시는 분) 가톨릭센터 행복한 가정운동(85-5098)
11. 제1회 지.오.세 광주관구 친선체육대회 : 6일(일) 오전10시 해성중·고 운동장
12. 어린이들의 모후 소년 꾸리아 모임 : 13일 1시30분 전동성당에서
13. 영성생활 연구소 특강 : 14일(월) 오후2시-4시 곳-서울가톨릭 회관 7층 대강당 주제-“죽음과 사멸” 강사-김중호선부 대상-성직자 수도자
14. 까리따스 수녀회 성소자 피정 : 13일 오전10 : 30 장소-서학동 성당 회비2,000원 준비물-미사, 필기도구 복장-간편한 복장및 운동화
15. 한국 외방 선교회 11월 성소모임 : 13일 오후2시-5시 주제-바오로의 선교.장소-서울본원 준비물-성서, 필기도구 대상-고교생, 대학생, 일반(미혼남성)

잠깐!

“열심히 준비하였습니다”

“한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밤마다 소쩍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라는 시귀가 생각납니다. 교구 단위로는 처음 마련된 음악제가 열리기까지는 너무도 긴 시간과 정열을 쏟아야 했습니다. 혹자는 말할 것입니다. “그같은 시간과 정열과 재력에 비해 무슨 효과,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그러나 성가 그 자체가 기도이며, 하느님의 이름으로 모인 만남이 교회이기에, 교회를 이루어 기도할 수 있었던 것만으로도 ‘하느님께 영광’이었습니다. 153명의 전 대원이 함께 하지는 못했어도 3개월이란 긴 시간을 거의 매일 함께 하여 하느님을 찬양하는 젊은이들의 아름다운 선율에서 ‘젊은 교회’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교구성가대연합회」는 이 발표회를 위해서 결성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를 시작으로 더욱 뭉쳐 계속 수준 높은 성가를 익힘으로 전주 교구 성가 육성의 ‘견인차’ 역할을 해야겠습니다. 교구의 제반 행사는 물론, 젊은이가 없어 성가 부르기가 힘든 농촌본당이나, 특수사목지를 지원하고, 성가를 더 잘 부르고 싶어하는 본당 성가대의 활력소가 되어야겠습니다. 뿐만아니라, 초 본당적으로 결성된 이 단체를 통해 전주교구의 젊은이들이 함께 만나는 기쁨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 동안의 노고에 찬사를 보내며 많은 교우님들의 참여와 격려를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교우들을 부단없이 초청 할 수 있도록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은 후원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요십이 (796) 김병오



의료보험조합 지정병원
신일군신경외과의원
부설: 물리치료실
원장 **신 일균** (아오스영)
윤 귀자 (로스리아)
병원 84-7288 자 6-8417
관동로 전주백화점~다가교 중간

전북 의료보험조합지정
김안과의원
부설: 신세계 안경
국제 콘택트 렌즈
원장: **김 호열** (헨 리 22)
전 은주 (베로니카)
전주 코아백화점 옆 중앙성당 앞
☎ 85-3020

저은 살균유우 드디어시판!!
한·데미브유가공(주)
대표 **박 선영** (헤레나)
본사공창: 정음 32-8981~8
이리대리점: 51-5718 (가계)
51-5715 (자택)

출산준비물, 유아복, 유아용품
모 아 방
효자체인점
항 상문 (오 썬)
김 계선 (하이앤)
효자동 서부시점 옆, 효자성당앞
☎ 82-2049

특수 헤어스타일
신부화장·드레스마춤·대여
최 윤경 (유리애나)
미용실·미용학원
학생 수시 모집
해외 연수생 모집
이리시 중앙동 3가 7-1
☎ 3-2496·2-8653

한방보약·예방의약
용(元茸) 九蒸苻 인삼
영 세 당 약 국
약 사 정 우진 (이시약) 항 신숙 (리비카)
MPH
전주시 완산국교 사거리 ☎ 6-6422, 6-5326 * 일요일은 휴무

